

2017년 7·8·9월

Family Day 가정예배 자료집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오직 믿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자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7·8·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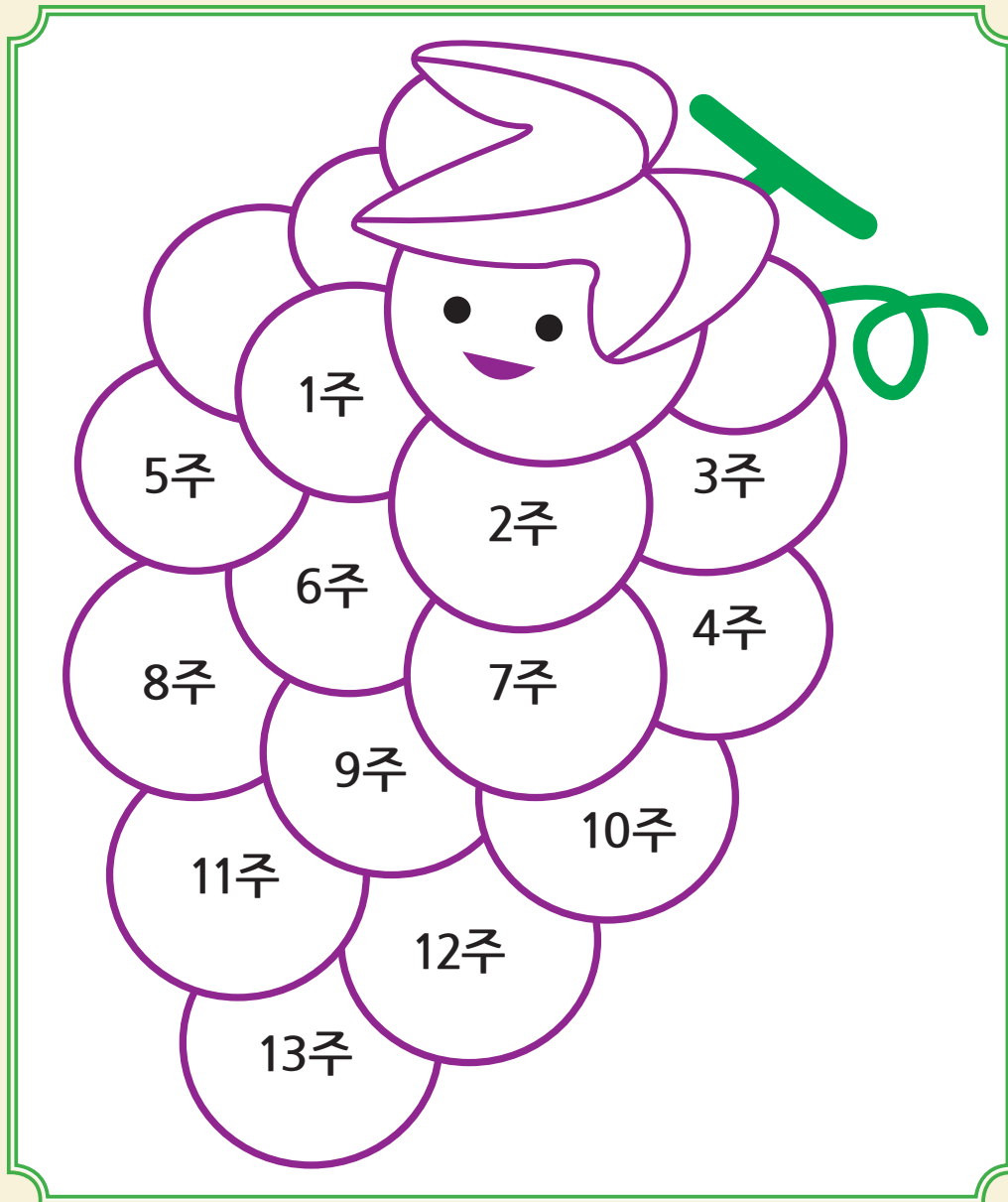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가정예배 포도나무

매주 가정예배를 드리고, 포도나무를 하나씩 색칠해보세요!



7월~9월 세 달 동안 가정예배를 8회 이상 드리신 가정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예배 포도나무’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일 시 : 10월 1일(주일) 오전 9시-오후 3시

장 소 : 베다니광장 가정예배자료집 배부처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 차

-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 7·8·9월호 소개 - “오직 믿음! 믿음으로 걸어나는 삶의 자리”	06
- 패밀리데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정을 소개합니다	08
- 7·8·9월 교육부 주요활동	10
- 패밀리데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정을 소개합니다	12
- 가정예배의 목적과 우리 가족 약속	13
- 예배 이렇게 드려요	13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7/2~7/8)	에녹의 믿음	14
2주 (7/9~7/15)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16
3주 (7/16~7/22)	믿음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	18
4주 (7/23~7/29)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라	20
5주 (7/30~8/5)	믿음으로 양보한 이삭	22
6주 (8/6~8/12)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
7주 (8/13~8/19)	함께 하시는 하나님	26
8주 (8/20~8/26)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	28
9주 (8/27~9/2)	라합의 선택, 믿음!	30
10주 (9/3~9/9)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	32
11주 (9/10~9/16)	믿음으로 던진 그물	34
12주 (9/17~9/23)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바울	36
13주 (9/24~9/30)	안디옥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	38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3)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가정”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하반절)

금번 7-9월호 가정예배의 주제는 ‘믿음으로 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정, 믿음으로 자녀를 품어주고 기르는 부모, 그 이야기로
삶을 세워가는 자녀들을 꿈꿔 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진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위의 사진에는 어엿한 가장이 된 올 해 35살의 닉 부이치치의 가족 사진입니다. 그는 1982년 호주에서 팔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밝고 쾌활한 인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을 주기 싫은 마음에 그는 남몰래 속앓이를 했고, 어린 나이에 세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0살 때 그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그를 가장 힘들게 하였던 것은 다음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깊은 질문 앞에서 그는 답을 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를 세워 준 것은 두 가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닉의 부모님은 그를 충분히 안아주며 닉의 모습 그 자체를 충분히 세워주는 말들로 그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듯이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과 안아줌도 ‘충분치 못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답이 되지 못할 때 그의 삶을 진정으로 세워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신앙 속에서 자신의 삶의 희망을 발견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 들인 이 두 가지가 이어져 그가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비로소 그는 자신의 삶에 이유가 있다는 것과 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만약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 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누군가를 위한 기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적을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닉은 수백만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강연을 통해 다른 이들을 향해 희망의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당했던 괴롭힘과 따돌림은 훗날 전 세계에 만연한 괴롭 힘과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을 비롯해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이들을 깊이 공감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다섯 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열아홉 살 때 우연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 지금 까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스스로가 사지가 없는 삶 (Life without Limbs) 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한 복판에서 희망을 가득 찬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며, 많은 사람의 삶에 참된 삶의 희망과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믿음으로 그를 안아주고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준 부모님이 있었고, 그 이야기 속의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삶과 세상에 희망을 빛을 비추는 이야기가 빛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절 하반절)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생명을 다해 외쳤던 길!

오늘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이 땅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길!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 땅에서 의롭게, 그래서 자신의 삶에 가장 충실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길!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참되게 살린 닉 부이치치처럼, 성경에는 삶의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된’ 신앙의 선조들과 가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번 7-9월호에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가정예배를 통해서 읽고, 듣고, 서로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뜨거움이 이어지는 이 계절에 매 주 가정예배를 통해 만나는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영글어가는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패밀리데이로 예배드리는 우리가정을 소개합니다!

종로성북 10교구 29구역 류화정 집사

✦ 가정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 ✦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 모태신앙인 남편 이정현 집사를 만나 97년 영락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주일성수도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고, 남편의 오랫동안 깊어진 세상적인 삶과 16개월 터울의 연년생의 육아로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 집 앞 교회 새벽예배에 나가 엎드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만을 의지했던 지난날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얼마 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 인간임을 쓸 때는 더 힘들어지기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자 거짓말처럼 남편도 가정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 말씀도 사모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봉사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가정예배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믿지 않는 친정식구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전도폭발훈련으로 인도하셔서 13명중 10명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온 며느리를 위해 오랜 세월 한결 같이 기도하셨을 시어머님(봉원숙 은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인 덕분이기도 합니다.

✦ 어려움 어떻게 극복 하였나 ✦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5년 남편이 바빠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아이들의 태도도 바르지 못하고, 기도도 성의 없이 하고, 감사가 빠진 예배라 여겨져서 육하고 화가 올라와 ‘이 예배를 과연 계속 드리는 게 맞나?’ 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가정예배가 소개된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가정의 모습과 99% 똑같은 사례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느껴져 읽는데 눈물이 펑 돌며 마음에 울리기를 “그래~ 화정아~ 그만하면 잘 하고 있다~ 목사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바쁜 남편 대신해서 가정의 파수꾼역할 잘하고 있으니 그만 두거나 포기해선 안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 줄게” 저녁에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가정예배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 저희집 예배 소개 ✦

가정예배는 보통 15분 정도가 소요되며, 사도신경→찬양→기도→성경봉독→(나눔)→주기도문→축복기도 순서로 드리되 예배 인도와 기도 및 찬양곡 선정까지 온가족이 돌아가며 맡아 합니다. 저희 집 가정예배의 가장 좋은 멘토는 성경말씀속의 예수그리스도입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 오다가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 한 장의 소제목 한 단락을 예배 말씀으로 읽어 현재는 로마서 말씀이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교회 가정예배책자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가정예배의 유익 ✦

가정예배의 유익함이라한다면, 정말 많은 유익들이 있지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날마다 함께하심을 가정예배를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 우리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 할 수 있다는 것! 온 가족이 아침마다 얼굴을 마주하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과의 갈등도 예배가운데 회복되고 자녀들을 통해 부모를 영적으로 깨우시니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신앙도 가정예배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가족이 믿음의 반석위에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이 유익이자 은혜입니다.

✦ 에피소드 두가지 ✦

♡2014년 7월에 저희 집에 오게 된 강아지(이름:잔디)도 날마다 저희 가정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예배드리자~”하면 예찬이의 양반다리 위에 폴짝 올라가 앉습니다. 강아지도 이제는 가정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것 같아 아침마다 웃음을 자아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찬이 예은이의 기도는 늘 한 결 같이 정말 짧고 단순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 처럼 예찬이는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시간에는 잔소리나 훈계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입에서 “아들! 회개 기도가 빠졌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고,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될 거 같아서 성경책을(쉬운성경 로마서1장18절~) 찾아 펼쳤는데 소제목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딱! 쓰여 있어서 모두 동시에 웃음이 났고 ‘우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며 박장대소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 소망 ✦

많은 분들이 “아침시간에 등교준비도 바쁜데 어떻게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느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가정예배를 처음 드리게 된 계기도 그랬고 그저 우리가정에 베풀어주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무엇으로 다 갚을 길이 없어 가정예배를 결단만 했을 뿐인데, 이 가정예배를 진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미약한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예배를 결단한 가정이 있으시다면 짧은 시간이나마 우선순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가족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글로 적어보며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가정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세대에 이어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로 계속 전해지길 바라며, 저희 자녀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 날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도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정현 집사, 류화정 집사, 고1 이예찬, 중2 이예은



7·8·9월 교육부 주요활동

부 서	프 로 그 램	기 간
교육부	성경암송 발표회	7/9 (주일)
교사교육부	64기 교사교육반 하반기 개강	9/10 (주일)
사랑부	성찬식, 세례&입교식	7/2 (주일)
	여름 수련회	7/28 (금)~30 (주일)
영유아유치부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7/8 (토)~7/9 (금)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7/15 (토)~16 (일)
	유니게학교 2단계 주모아스쿨 44기 개강	9/9 (토)
	유니게학교 44기 가족캠프	9/22 (금)~23 (토)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2차 강습회	7/1 (토)
	가족초청예배	7/2 (주일)
	여름성경학교 교사 기도회	7/9, 16 (주일)
	성경찾기	9/17 (주일)
초등부	가족초청예배	7/2 (주일)
	여름 성경학교 2차 강습회 및 기도회	7/15 (토)
소년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7/9 (주일)
	성경학교 강습회 및 기도회	7/16 주일
CEBC	빙수데이	7/9 (주일)
	여름 성경학교	7/28 (금)~29 (토)
아동부 연합	유년, 초등,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7/21 (금)~23 (주일)
	아동부 축구캠프	8/2(수)~5일(토)
	더 스토리데이	9/10~17 (매주 주일)
	아동부 통합주말학교 하반기 개강	9/30 (토)

부 서	프 로 그 램	기 간
중등부	수련회 준비기도회	6/2~7/26 (매주 수)
	교사 비전기도회	7/1~9/2 (매월 첫주 토)
	여름 수련회	7/28 (금)~30 (주일)
	대그룹 BtoB 통합공과	8/27 (주일)
	YDS 개강YDS 개강	9/23 (토)
고등부	여름비전캠프	7/24(월)~26(수)
	YES 5기 제자훈련	6/10 (토)~7/22 (토)
	해외선교역사 문화탐방	8/7 (월)~12 (토)
대학부	상반기 세속성자	6/25-7/23 (매주 주일)
	하계 수련회	7/5 (수)~8 (토)
	해외단기선교 (잠비아)	7/18 (화)~29 (토)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실시	7~8월
	LTS (리더십양육과정)	9/16 (토)~12/2 (토)
청년부	제41차 하기선교봉사 워크숍	7/1~29 (매주 토)
	하기선교봉사 발단예배	7/30(주일)
	제41차 하기선교봉사	7/31 (월)~8/4 (금)
	후반기 리더양육훈련(실습반)	9/17 (주일)~11/19 (주일)
	2018 청년목회 정책세미나	9/23 (토)



가정예배의 목적과 우리 가족 약속

가정예배를 통하여

- ①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 ②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 ③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 ④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 ①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 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 ②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③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④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이렇게 드려요

①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② 말씀읽기(개역개정)

한 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③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들은 경청합니다.

④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⑤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찬 양 ▶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여 기 에 모 인 우 리 주 의 은 총 받 은 자 여 라 주 께
 2.주 님 이 뜻 하 신 일 해 아 리 기 어 렵 더 라 도 언 제
 3.여 기 에 모 인 우 리 사 랑 받 는 주 의 자 녀 라 주 께

서 이 자 리 에 함 께 게 심 을 아 노 라 언 제
 나 주 뜻 안 에 내 가 있 음 을 아 노 라 사 랑
 서 뜻 하 신 바 우 리 통 해 께 치 신 다 고 통

나 주 님 만 을 찬 양 하 며 따 라 가 리 니 시 험
 과 말 씀 들 이 나 를 더 욱 새 롭 게 하 니 때 로
 과 슬 픔 중 에 더 욱 주 님 의 지 하 오 니 어 려

을 당 할 때 도 함 께 게 심 을 믿 노 라 이 믿 음
 는 넘 어 저 도 최 후 승 리 를 믿 노 라
 움 이 겨 내 고 주 님 더 욱 찬 양 하 라

더 욱 굳 세 라 주 가 지 켜 주 신 다 어 둔

밤 에 도 주 의 밝 은 빛 인 도 하 여 주 신 다

하 여 주 신 다

말 씀 읽 기 ▶ 창세기 5:21-24, 히브리서 11:5-6

▶ 창세기 5:21-24

-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히브리서 11:5-6

-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6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 듣기

에녹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을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 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없이 삼백년이라는 시간을 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게 되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진리를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도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

Q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Q 2.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찬 양

〈주님은 신실하고〉

주 - 님은 - 신 실 - 하 - 고 항상 거 기 - 계 - 시 - 네

주 사 랑 을 뭐 - 라 할 까 -

주 사 랑 - 이 내 생 명 보 다 귀 - 하 - 고 - 주 사 랑 - 이 파 도 보 다 더 강 - 해 - 요

세 월 이 - 가 고 꽃 이 시 들 어 도 - 주 사 랑 - 영 원 해 - 주 님

사 랑 - 신 실 해 - 요 - 사 랑 - 신 실 해 - 요 -

말 씀 읽 기 ▶ 창세기 6 : 13-22

- 13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 14 너는 고펬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2)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 단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많은 비를 내릴 것이니 이 비를 피할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비를 내리셨습니다. 물로 세상이 가득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하기

- Q 1. 내가 만약 노아였다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지 함께 나누어보세요.
- Q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속상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보세요.

기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찬

양

〈믿음으로 서리라〉

말씀 읽기 ▶ 창세기 22:1-2, 7-14

- 1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का
-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 11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 듣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들을 향해 칼을 치켜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며, “친히 준비하시리라”던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숫양을 마련해 주셨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 축복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제물이 준비되지 않은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명령에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 그리고 어머니 사라 역시 믿음으로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세상이라는 산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생각하기

- Q 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 Q 2.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셨으며, 지금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찾아 감사로 고백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이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기 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법과 가치를 따라 살면서 믿음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주세요.

찬

양

〈믿음 따라〉

믿 음 따 라 — 걸 음 마 다 — 말
 숨 따 라 — 주 님 만 따 르 — 리 — 믿
 나 의 가 는 길 — — 믿 음 따 라 갈 — 때 군
 대 가 날 에 위 싸 — 도 겁 없 네 — 또
 내 입 술 의 기 — 도 믿 음 의 선 포 — 주
 님 날 위 하 시 — 면 누 가 날 대 적 하 — 리 믿
 님 날 위 하 시 — 면 누 가 날 대 적 하 — 리 믿
 음 따 라 — 걸 음 마 다 — 말
 숨 따 라 — 주 님 만 따 르 — 리 — 믿

말씀 읽기 ▶ 창세기 18:9-14, 히브리서 11:11

▶ 창세기 18:9-14

-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 히브리서 11:11

-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말씀 듣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 17:1-16)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자신을 생각하며 그 약속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4)”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히 11:11).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사라는 90세의 나이로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큰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하기

- Q 1. 믿음은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고 싶은 것과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믿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 Q 2.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되새기며 각자가 가진 소망을 서로 나누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 봅시다.

기도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찬

양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 예수 - 의지해 요 나의 피난처 - 예수 - 의지해 - 요 - 나의
나는 영원히 - 주님 - 사랑해 요 나는 영원히 - 주님 - 사랑해 - 요 - 세상

가는 길 - 에 거 - 섰바 - 람 몰아쳐 - 와도 - 나의 피난처 - 예수 - 의지해 요
어떤 것 - 도 나 - 의 사 - 랑 끊을 수 - 없네 - 나는 영원히 - 주님 - 사랑해 요

요 아바 아 버지 나를 사랑 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요 아바

아 버지 내가 여기 있으 니 주님 영 광 위 하 여 썬 주세 요
교 회 위 하 여 썬 주세 요

말 씀 읽 기 ▶ 창세기 26:12-22

-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 하리로다 하였더라



말 씬 듣 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에서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의 삶이 평안하고, 가진 재산이 많이 불어나자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괴롭히기 위해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우물을 흙과 쓰레기로 막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속상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 우물을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샘솟는 우물을 파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3번이나 양보하며 우물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며, 이삭의 우물을 막고 또 빼앗으려고 할 때 이삭은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힘들게 얻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네게 복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창 26:3)’ 라고 하였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양보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을 기뻐하셨고, 이삭을 찾아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우물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기쁨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생 각 하 기

- Q 1. 누군가에게 무작정 양보를 한다는 것은 왜 어려운 일일까요? 나의 말로 대답해 봅시다.
- Q 2.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해 봅시다.

기 도

하나님, 이삭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양보하고,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

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E E/D# C#m E/B A E/G# F#m B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 낮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 하시니 - 그가

1. E E/D# C#m E/B A A/B E

해와 밤의 달 - 도 너를 해치 못 하리 - 하나

2. E E/D# C#m E/B A B E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13. B E B E G#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17. C#m A F#m B E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 다

말씀 읽기 ▶ 창세기 28:10-15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 씬 듣 기

야곱은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자신이 받게 되어 형의 미움을 얻게 되었고, 결국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도 없었고, 친척집에서 지내야 하는 야곱에게는 기쁨과 희망 보다는 무서움과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던 중, 날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서 잠시 잠을 청하려 누웠습니다. 잠이 든 야곱은 꿈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며, 어디로 가더라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때에 찾아와 위로해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쁨 때나 슬픔 때도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합니다.

생 각 하 기

- Q 1. 야곱은 가족을 떠나 친척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하는 야곱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 Q 2.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주셨던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족은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봅시다.

기 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 올 때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양 ▶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 나 님 - 의 - 은 혜 로 이 쓸 데 없 - 는 - 자 왜
 2. 왜 내 게 굳 - 세 - 믿 음 과 또 복 음 주 - 서 - 서 내
 3. 왜 내 게 성 - 령 - 주 서 서 내 맘 을 감 - 동 - 해 주
 4. 주 언 제 강 - 령 - 하 실 지 혹 밤 에 혹 - 낮 - 에 또

5 구 속 하 - 여 - 주 는 지 난 알 수 없 - 도 - 다 내 가
 맘 이 항 - 상 - 편 한 지
 예 수 믿 - 게 - 하 는 지
 주 님 만 - 날 - 그 곳 도

9 믿 고 - 또 의 지 함 은 - 내 모든 형 편 - 잘 아는 주 님 늘

13 돌 보 - 아 주 실 것 을 나는 확 실 히 아 네

말 씀 읽 기 ▶ 창세기 39:1-6

-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 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말씀 듣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지내왔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1절)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아픔은 정말 컸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주었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아픔은 더욱 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의 일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해주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2절) 이러한 요셉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결국 요셉은 주인에게 인정받아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각하기

Q 1.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무엇 때문에 힘들었나요?

Q 2.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기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A Bm E7 A

하 - 나 님 은 우 리 의 - 피 - 난 처 가 되 시 며 -

5 A Bm E7 A

환 - 란 중 에 우 리 의 - 힘 - 과 도 움 이 시 라 -

9 E7 A Bm7 E7 A

너 회는 가만히 있 - 어 - 주 가 하 나 님 - 됨 알 지 어 다 -

사 랑 합 니 다 내 아 버 지 - 찬 양 합 니 다 - 내 운 망 다 하 여 -

14 A Bm7 E7 A

열 방 과 세 계 가 운 - 데 - 주 가 높 임 을 - 받 으 리 라

선 포 합 니 다 예 수 그 리 스 도 - 주 님 오 심 을 - 기 다 리 며

말 씀 읽 기 ▶ 출애굽기 14:10-16

-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 듣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쁨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뒤에는 애굽 군대로,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13절) 왜냐하면 그들이 서게 된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며, (2절; 출13:17)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18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어려운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16절)

생각하기

Q 1.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렵다고 느껴지나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나요?

Q 2.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마주하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양

〈믿음 있는 어린이〉

E F#m/E B/E E
 믿음 있는 — 어 린 이 — 손뼉 치 며 일 어 나
 기쁨 있는 — 어 린 이 — 발구 르 며 일 어 나

5 E A/E F#m/B B6 1. E 2. E
 경 배 와 찬 양 을 — 주 님 께 드 리 세 — — 내 영 으

10 A B/A G#m C#m
 로 찬 — 양 — 내 맘 으 로 찬 — 양 — 주 님

14 F#m B E E7
 의 은 혜 와 — 사 랑 을 찬 양 드 리 세 — 내 영 으

18 A B/A G# C#m
 로 찬 — 양 — 내 맘 으 로 찬 — 양 — 주 님

22 F#m B7 E
 의 사 랑 을 — 찬 양 하 세 —

말 씬 읽 기 ▶ 여호수아 2:8-14

-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 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말씀 듣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에 정탐꾼 두 명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도착해서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병사들은 두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 라합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주었고,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높으신 신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경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라합의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라합의 가정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그녀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기

- Q 1. 여리고 병사들이 라합을 찾아왔을 때,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라합처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 Q 2. 라합을 통해 그녀의 가정이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

하나님,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찾아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찬

양

〈믿음 있는 어린이〉

E F#m/E B/E E

믿음 있는 — 어 린 이 — 손뼉 치 며 일 어 나
기쁨 있는 — 어 린 이 — 발구 르 며 일 어 나

5 E A/E F#m/B B6 ¹E ²E

경 배 와 찬 양 을 — 주 님 께 드 리 세 — — 내 영 으

10 A B/A G#m C#m

로 찬 — 양 — 내 맘 으 로 찬 — 양 — 주 님

14 F#m B E E7

의 은 혜 와 — 사 랑 을 찬 양 드 리 세 — 내 영 으

18 A B/A G# C#m

로 찬 — 양 — 내 맘 으 로 찬 — 양 — 주 님

22 F#m B7 E

의 사 랑 을 — 찬 양 하 세 —

말 씬 읽 기 ▶ 사무엘상 17:34-37

-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간다면
- 35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 37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듣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서로 대치하며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키와 덩치가 큰 골리앗에게 감히 덤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키가 작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찾아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이 다윗을 덮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셨음을 말하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 Q 1.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삶속에서 어떤 일에 ‘반응’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일에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시다.
- Q 2.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있나요? 서로 이야기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봅시다.

기도

하나님, 우리를 막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와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



- 34- 가정예배 Family Day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말씀 듣기

오늘 이야기 속의 예수님께서서는 호숫가의 배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는, 자신이 올랐던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생활에 잔뼈 굵은 베드로가 고기라고는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의 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답합니다. 그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윽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했다면 전혀 만나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던진 베드로의 그물이 결국에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하기

- Q 1. 어부로서의 경험이 풍부했던 베드로처럼 내가 자랑하던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Q 2.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나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했던 경험이 있나요?

기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내세우려고만 했던 나의 자랑거리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찬 양 ▶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2. 이 눈이 보기에 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3. 주님의 기록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서리라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 세 믿음 위에서 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세 믿음 위에서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 읽기 ▶ 사도행전 16:24-25

-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 듣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모여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나쁜 사람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군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감옥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켜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가정도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하기

- Q 1.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내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Q 2. 바울은 감옥에 갇힌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바울처럼 우리 가정도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 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

A/C# D A/C# Bm7 D/B
 나의 믿음 — 주께 있네 — 십자가 능력이 — 내영 — 광되 — 었
 4 A F#m7 DM7 D/E C#m7 F#m7
 네 주께 — 서 우 리를 — 승리케 하 셧네 — 나의
 7 Bm7 Bm7/E E A
 — 능력 — 나의 — 소망 — 주께 있네 —

말씀 읽기 ▶ 사도행전 11:19-26

-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2)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 씀 듣 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바나바는 믿음의 큰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 바나바와 함께 하셔서 안디옥 지역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게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됩시다.

생 각 하 기

Q 1.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Q 2.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원동력, 교회를 세운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기 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발행통권 | 14호
 발행일 | 2017년 7월 2일
 발행인 | 이철신
 기획인 | 백성우, 박남진
 편집인 | 박정웅
 디자인 | 장현주
 집필진 | 백성우, 이종실, 임대순, 이대혁, 이사도
 신주현, 서평강, 박정웅, 김시규, 김한나, 서예림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www.youngnak.net
 전화 | 02-2280-0131
 발행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표지일러스트
 [즐거운 여름] 장현주_ 2017
 29.7x21cm, CG on Paper